

· 함양 천령포크 영농조합법인 ·

아파트형 돈사, 향후 트렌드될까?



▲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소재 천령포크 영농조합법인(대표 노정만, 시설 유료하우징)이 3층으로 된 아파트형 최신식 돈사를 선보였다.

취재 : 이 병 석 과장

3층으로 된 아파트형 돈사가 선 보여 양돈농가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.

화제의 돈사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소재 천령포크 영농조합법인(대표 노정만, 시설 유료하우징).

이 농장은 3년전 번식사동을 1,080평(1층당 360평) 규모의 3층 돈사로 건축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가, 금번 비육사동 연면적 1,080평을 신규로 건축했다. 이번 신규 돈사의 특징은 각 층별 360평씩 규모의 3층 돈사라는 점.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총 20억원으로 1평당 평균 180만원의 자

금이 투입되었다. 3층으로 건립된만큼 돼지를 이동시키기 위한 엘리베이터는 필수품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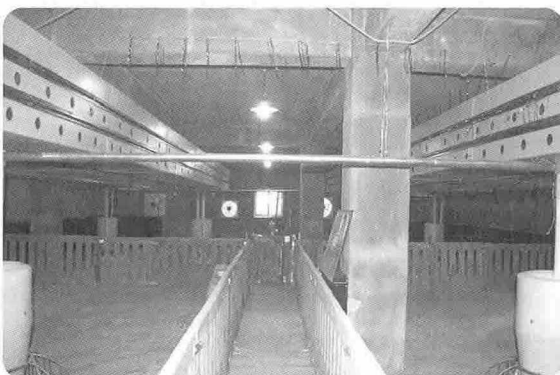
천령포크는 부지가 총 5천평으로 건축면적은 번식사동 1,195㎡, 비육사동 1,190㎡, 퇴비사동 1,488㎡이며, 연면적은 번식사동 3,588㎡(3층, 철골조), 비육사동 3,570㎡(3층, 철근콘크리트조), 퇴비사동 1,499㎡(철골조)이다.

천령포크는 모돈이 560두 규모이며, 이번 비육사동 신규 건축을 계기로 번식과 육성·비육 등 일관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

노정만 사장은 투입된 자금은 3년에서 5년이



▲ 이번 신규 돈사의 특징은 각 층별 360평씩 규모의 3층 돈사라는 점.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는 필수품이다.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총 20억원으로 1평당 평균 180만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.



▲ 아파트형으로 건축되어 보온성이 뛰어나 여름에는 시원하고, 겨울에는 따뜻해 별도의 보온장치를 안 해도 20~21℃ 정도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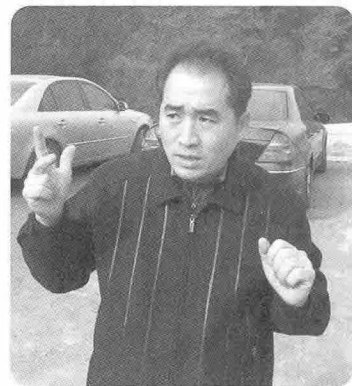
면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, 초기 시설비가 높게 투자되었으나 돈사의 내구연한이 30년으로 일반 건축물 수준이며, 내부자재 또한 10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축한 후 3년 정도면 본격적인 수리가 들어가는 일반 돈사에 비해 내부시설 교체비용은 훨씬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강조한다.

노 사장은 함양지역의 건폐율이 30%이며, 토지가 그리 싸지가 않은 편여서 3층으로 돈사를 건축할 경우 토지 이용면에서 좋고, 돼지를 관리하는데 편리하며, 통기성이 좋아 환기가 잘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. 또한 아파트형으로 건축되어 보온성이 뛰어나 여름에는 시원하고, 겨울에는 따뜻해 별도의 보온장치를 안 해도 20~21 정도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.

분뇨는 깊이 80cm의 슬러리 시설로 철저히 올인 올라웃을 실시, 질병차단을 기하고 있으며, 환기는 음압피트배기방식(입배기)으로 여름, 겨울철 등 계절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했다.

노정만 사장은 현재의 터에 양돈장을 새로 신축

▶ 천령포크 노정만 사장은 앞으로 우리 양돈농가들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농장을 가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
하기까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, 보여주는 농장, 관광지도 겸할 수 있는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조경도 신경을 써 농장 주변을 아름답게 가꿀 계획이라고 한다.

초기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3층 돈사! 과연 시설비 투자에 대한 다른 양돈농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?

앞으로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에도 돈사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 보기 좋고 아름다운 농장, 우리 양돈장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향후 우리 농장이 가야할 길은 어느정도 정해져가는 느낌이다. **양돈**